

재정부 공개 '한미 FTA' 질의답변 자료

농업부문 협상 차별화 피해 최소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지적들에 대해 자체 자료집을 만들어 23일 발표했다.

기아차·현대차 수출 긍정적 효과 기대 사회안전망 통해 실직자 보호대책 시행

대안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대기업에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데.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농업부문의 피해는. ▲일단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 전략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등을 활용하겠다. -미국측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없는 FTA 협상은 없으며 과거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도 자국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예외조치는 있었다.

-경쟁력이 약한 부분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높은 조정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냉동민어 등 냉동어류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경직적인 임금

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여성·고령 근로자의 증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왜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하는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등 지역주의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흑자지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고질적 대미 수입 의존도를 개선하고 기타 지역에 대한 흑자폭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가 양국과 해소에 도움이 되나.

▲한미 FTA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5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75%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낮은 실천'

'죽호학원' 학생들 체납 급식비 1,839만원 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딱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낮은 실천'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그룹 측은 최근 광주 지역에 설립한 학교재단 '죽호학원'의 금호고·중앙여고·금과공고·중앙중 등 학생들이 급식비 및 학교운영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은 박삼구(사진) 회장에게도 보고됐고, 박회장은 그룹에 이들 학생의 미납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박회장은 지난 2월 '아름다운 기업' 선포식을 통해 '지탄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회공헌 활동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룹 측은 177명의 학생들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급식비 등을 체납한 1천839만원을 이달 말 후원금 형식으로 각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를 관계자는 "한달 휴대전환 요금도 안되는 금액을 연체해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데 놀랐다"며 "후원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대기업들이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정몽구 현대차 회장 소환 앞두고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

검찰이 현대차그룹 비자금 등의 사건과 관련, 24일 정몽구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정 회장 소환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해외 딜러들은 물론 국내 하청업체 임직원들도 이번 수사에 따른 이미지 추락 등 파급효과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고 딜러망이나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 딜러망 '백제'...붕괴 우려 = 23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북미 딜러망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해외 딜러네트워크가 '경고음'을 내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 현대차딜러협회 스킵트 핑크 회장은 최근 협회 모임에서 현대차그룹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금명간 현대차측에 발송키로 했다.

핑크 회장은 모임에서 "현대차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고객들이 비즈니스 외적인 요소로 현대차 구매를 유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며 "미국 고객들은 대부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회사의

제품 구매를 꺼려 이번 사태가 판매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협력업체들도 우려 표명 = 국내에서도 현대차 사태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부품공급 협력업체 모임인 현대·기아차협력회(회장 이영섭)는 전국 1천800개 업체 임직원 5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22일 검찰에 제출했다. 협력업체와 임직원들은 탄원서에서 "협력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견뎌야 할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현대·기아차의 경영차질이 본격화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날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영상 위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 결과,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현대·기아차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국내외 사업에 지대한 혼란과 지연을 초래, 동반부자를 진행하는 협력사들에게 영향이 몇배나 증폭 파급돼 생업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점을 고려해 수사를 매듭지어줄 것"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몸에 좋은 죽순 고르기

23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식품매장에서 열린 순천산 죽순 판매전에서 고객들이 번비,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등 몸에 좋은 죽순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참깨 저관세 수입물량 10배 늘린다

재정부, 물가 안정위해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참깨의 물량이 10배 이상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참깨 등 13개 수입 농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천164만8천으로 지난해보다 53만1천 늘렸다고 밝혔다.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은 참깨처럼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보조자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다.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품목 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자용 옥수수(가공용 옥수수)가 새로 추가됐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7만5천으로 지난해의 6천보다 10배 이상 확대되고 근채류(뿌리채소)는 64만으로 4배, 가공용 대두는 28만4천으로 9만8천, 감자,변성 전분은 16만3천으로 11만8천이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국내 물가 안정과 식품가공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연합뉴스

400대 주식부자 평가액 63조

시가총액의 9% 육박 이견희·정몽구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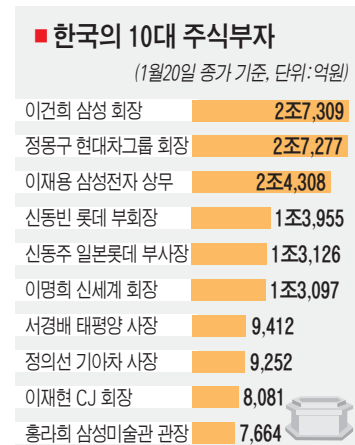
국내 400대 주식부자의 시가평가액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월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 기준 한국 400대 주식부자의 시가평가액은 총 63조2천9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사까지 포함된 이들의 보유주식 가치를 조사 기준일의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716조9천934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8.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시 호황 덕분에 1천억원 이상 주식 부자는 141명으로 1년 전 46명에 비해 3배로 불었으며 100대 주식부자의 시가평가액도 42조5천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주식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부자는



6명이었다. 이견희 삼성 회장의 주식 자산은 지난해보다 7천911억원 늘어난 2조7천309억원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회장과 불과 32억원 차이인 2조7천2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2위였던 이재웅 삼성전자 상무의 평가액도 2조4천308억원으로 7천863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Salary/Requirements, Salary Range,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positions like '정규직 인사팀' and '2006년 금융전문'.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

나주 혁신도시 후보지 땅값 3.15% 치솟아

1분기 전국 토지거래는 감소

1·4분기 전국 땅값은 거래감소속세 나주 등 혁신도시 후보지와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1.31%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8.26%, 5.99% 급등했고 혁신도시 후보지인 경북 김천(5.17%), 충북 진천(4.56%), 음성(3.94%)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3월 0.52% 상승, 1월(0.35%), 2월(0.42%)에 비해 오히려 올랐으며 누적 상승률도 1.31%로 작년 동기(0.75%)를 능가했다.

땅값을 끌어올린 지역은 행정도시와 주변지역인 충북 청원(4.57%), 아산(2.56%), 대전 유성(2.17%)과 혁신도시 후보지인 충북 진천, 음성, 경북 김천, 나주(3.15%), 대구 동구(2.08%), 강원 원주(1.92%) 등이다.

기업도시 가운데는 충남 태안(2.18%), 강원 원주(1.92%)와 수도권 신도시 경기 화성(1.55%), 김포(1.1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 1.78%, 부산 0.58%, 대구 1.32%, 인천 1.08%, 광주 0.49%, 대전 1.59%, 울산 0.77%, 경기 1.12%, 강원 0.72%, 충북 1.95%, 충남 2.77%, 전북 0.36%, 전남 0.55%, 경북 0.87%, 경남 0.65%, 제주 0.6% 등이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세계 반도체주 1위 등극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주 1위에 등극했다.

23일 증권실물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포함해 113조9천661억원(미화 1천201억달러·21일 환율 기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현지시간) 우선주가 없는 인텔의 시가총액은 1천121억달러로 삼성전자보다 80억달러(7조5천840억원) 모자란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대만반도체(535억달러)와 도시바(197억달러), 하이닉스(161억달러), 인피니온(86억달러) 등 다른 반도체주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뉴욕증시 상장사들과 비교해보면 구글(1천233억달러)에 이어 32위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대만반도체(535억달러)와 도시바(197억달러), 하이닉스(161억달러), 인피니온(86억달러) 등 다른 반도체주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인텔은 독점 품목인 CPU(중앙처리장치)에 안주하다가 이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경쟁업체인 AMD에 밀리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인텔의 주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최근 6개월 동안은 실적악화 우려가 더욱 짙어지면서 28.8%나 떨어졌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